# '만원 아파트' 화순군 20대 인구 전남 시·군 중 최다 증가

## 11월 27명 늘어나 6197명…전체 인구도 21개월만에 늘어
## 월 임대료 1만원에 최장 6년 거주…"내년 100호 추가 공급"

'청년·신혼부부 만원 주택' 등 파격적인 인구정책을 시행해온 화순군이 지난달 20대 청년 인구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한 달 새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순군 인구는 6만1331명으로, 전달보다 21명 증가했다. 화순군의 전월 대비 인구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무려 21개월 만이다.

전남 전체 인구는 전달보다 948명 감소한 180만4875명으로 집계됐다. 22개 시·군 가운데 전달보다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광양시(125명)와 나주시(59명), 곡성군(27명), 화순(21명), 함평(6명) 등 5개 시·군이다.

특히 화순지역 20~29세 인구는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이 늘었다. 화순 20~29세는 지난달 기준 6197명으로, 전달보다 27명 증가했다. 전달보다 20대 인구가 늘어난 곡성(14명), 고흥·해남(각 5명), 구례(3명), 영광·진도(각 1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전남 전체 20대 인구는 전달보다 358명 줄었다.

화순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올해 시행한 화순군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의 2차 모집 세대가 입주와 함께 전입 절차를 이행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화순군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부영주택)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화순읍에 있는 66㎡(20평) 형 임대 아파트가 임대 대상이다. 가구당 4800만원인 임대보증금은 화순군이 부담한다. 올해 총 100호를 공급했으며, 그 중 42세대 52명은 청년(18~49세)은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왔다.

월 1만원만 내면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 '만원 아파트'의 최고 경쟁률은 올해 5월 1차 10대 1, 8월 2차 34대1을 기록했다.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사업'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에 크게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달 열린 '대한민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국무총리상을 받고 행정안전부·한국생산성본부(KPC) 주관 '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복지 분야에서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던 화순군에서 이러한 인구수 증가는 지방소멸을 막고 인구수 반등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된다"며 "화순군은 내년 100호를 공급해 2026년까지 총 400호 공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에 있는 '월 임대료 1만원'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 나주시, 공공비축미 9574t 매입 완료…특등급 비율 40%

## 산물벼 1591t·건조벼 7983t

나주시가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9574t 매입을 완료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산물벼(마르지 않은 벼)는 1591t, 건조벼는 7983t(포대벼 7624t·친환경벼 95t·가루쌀 264t)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반벼 매입품종은 '신동진 새청무'로 최고 등급인 '특등' 비율이 전체 40%에 달했다. 이는 전년 32%에서 8%증가한 수치로 농업인들은 농자재 값 상승, 일손 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고품질 벼를 생산하며 한 해 농사 결실을 맺었다.

매입대금은 수매 직후 중간정산금 3만원(40kg 기준)을 우선 지급하고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매입 가격 확정 후 연말까지 농가에 지급된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난 5월 동강면에 미곡종합처리장(통합RPC)를 준공, 고품질 쌀 생산에 힘써오고 있다.

통합RPC는 시간당 정곡 10t, 연간 최대 2만t을 생산할 수 있는 전국 최대규모 가공현대화시설과 쌀 8400t이 수용 가능한 건조·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들이 공공비축미곡 매입 앞서 등급 판정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생산·가공하는 '왕건이 탐낸 쌀'(브랜드 명칭)은 2023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쌀 브랜드로 인정받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나주쌀 생산을 위해 땀 흘린 농업인들의 노고와 원활한 매입을 위해 협조해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며 "국가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인 농업을 수호하는 농업인들의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업,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

# 이남오 함평군의원 '대한민국 공헌대상' 의정대상

이남오(사진 오른쪽) 함평군의회 의원이 '4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받았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은 이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사단법인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대한민국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교육·문화·체육·의정·봉사·환경·지자체 등 7개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18년 제정됐다.

이남오 의원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9대 함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시상식에서 "함평군의회는 오직 군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 내년 3~4월 준공 담양시장 입점 상인 모집

## 1층 점포 43개 28일까지 신청

담양군이 내년 3~4월 준공하는 담양시장 1층 점포(43개) 입점 상인을 2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1세대 1점포 배정을 원칙으로 담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본점이 담양군에 소재하는 법인이다.

사용자가 내부 시설 일부를 부담해 설치하고 공공요금 및 일반관리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 기간 3년이다. 임대료는 별도 산정한다.

사업계획서 등 서류와 면접을 거쳐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입점자를 확정한다.

옥상을 활용하는 '루프탑가든'형 복합상가로 건축하는 담양시장은 상설점포를 1층에 배치하고 2~3층은 식당과 카페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 강진경찰서 신청사 건립 급물살…감사원·기재부 협조로 '물꼬'

## 사전 설계비용 지급 가능해져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매몰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이 감사원 사전 컨설팅 결과에 따라 경찰서 신축부지 이전과 관련된 매몰 비용인 사전 설계비용의 지급이 가능해져 그동안 큰 산으로 여겨졌던 제도적 난관이 해소됐다.

군은 지난 6월 경찰서 이전과 관련된 국유지 교환 검토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현지실사 등을 실시했지만, 기존 설계에 대한 비용 지급과 미 매입한 토지의 수용 문제 등으로 경찰서와의 협의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군은 타결책을 찾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지속 방문하고 지난 9월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하는 국가-지자체 국유재산활용협의회에 서순철 부군수가 참석해 해당 안건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협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매몰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감사원 사전감사 컨설팅을 신청했으며, 감사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성과를 이끌어냈다.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강진경찰서.

감사원의 컨설팅에 따라 국유 재산과 지자체의 상생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미 매입한 1필지를 제외한 강진군이 확보한 부지와 현 경찰서의 부지를 맞교환하고, 경찰서 건립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강진군 관계자는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지목변경과 같은 사전 절차를 준비 중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감정평가 및 교환협약 등 부지교환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경찰서 신청사 건립 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 함평군 '우수 국산 밀 단지 선발대회' 최우수상

## 나비골 월송 친환경영농조합법인

함평군은 '2회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대동면 나비골 월송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최우수상을 받으며 '2023년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발대회'는 전국적으로 국산 밀 생산 경영체의 전문조직화와 우수 생산단지를 홍보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이번 선발대회에는 전국 국산 밀 생산단지 19개소가 신청했다.

공동영농(조직화), 규모화(재배면적·생산량), 품질관리, 경영안정 등을 평가해 '단지운영' '규모화' '품질 제고' '판로 확보' 등 5개 부문으로 우수단지를 선정했다.

나비골 월송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생산량의 60%를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하는 등 판로 확대 부문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 수상 단체에 선정됐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선발대회를 통해 함평 국산 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산 밀 생산단지 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화순 문화해설사 단체 회원들이 장학금을 기탁한 후 구복규 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 (재)화순장학회에 장학금 기탁행렬 줄이어

## 문화관광해설사·화순농협 등 참여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행렬이 이어져 감동을 주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회장 다케다 지에미) 회원들이 100만원, 화순농협(조합장 조준성)에서 1000만원을 기탁했다.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다케다 지에미 회장은 "관광객들에게 우리 화순의 문화유적지를 해설하며 항상 자부심을 느낀다"며 "교육 발전이 곧 지역 발전이라고 생각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순농협은 지역 인재들의 학비 부담 경감과 면학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화순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기탁 장학기금은 1억 5500여만원이다.

화순농협 조준성 조합장은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며 "매년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재)화순장학회는 2009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총 3434명에게 24억4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최근 다자녀 장학생 분야를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학생들을 위해 적극적인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학회 이사장 구복규 화순군수는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장학기금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뿐이다"며 "2024년에도 지역 인재를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